



景氣回復에의 對 備 戰 略



尹 能 善

<韓國經營者 協會專務>

1. 貿易收支의 逆調

經濟指標가 75年 韓國經濟의 어려움을 切感케 하고 있다. 돌이켜 보건데 73년에 있어서 先進 發開途上國으로서 好況을 흐뭇하게 謳歌해 온 나머지인 때문에 74年의 인플레이와 不景氣의 接치기 苦難이 뼈저리게 느껴졌던 것이다. 그러나 75년에는 더한층 그러할 것을 覺悟하지 않아서는 안될 것 같은 豫感이 굳어져 가고 있다.

開放經濟體制이고 原資材 輸入依存國이면서 商品은 輸出依存國인 韓國經濟는 國際經濟의 인플레이와 景氣循環의 影響을 敏感하게 그리고 幅넓고 深度깊게 받지 않을 수 없다. 특히 美·日兩國은 對韓原資材供給國인 同時에 韓國의 2大 輸出對象國이니만치 그 두나라의 인플레이와 不景氣의 움직임 如何가 韓國經濟에 대해서 決定的인 波及效果를 가져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因果 關係이다.

먼저 올해의 韓國經濟가 1年前쯤 豫想하였던 것 보다 훨씬 多難한 고비를 넘겨야 할 可能性을 最近 政府로 부터 發表된 經濟指標에 依해서 認識하여야 하겠다.

즉 첫째로 輸出不振에 緣由하는 國際收支의 導入資本依存도가 上向할 前途이다. 이 原稿의 內容이 活字化 될 時點에는 3月의 經濟指標가 밝혀지겠지만 既發表된 2月實績을 보건데 輸出實績이 豫想以上の 不振이고 3月에도 그 같은 狀況이 계속될 것, 또한 2月末까지의 信用狀 來到額을 根據로해서 展望할 수가 있다.

좀 더 具體的으로 말하자면 1-2月의 商品 輸出實績이 6億 8百 40萬弗인데 이는 前年同期보다 1.3% 減少된 것이고 75年의 輸出目標의 10.1%에 不遇한 輸出實績이다. 2個月동안

에 年間目標의 10.1%밖에 達成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輸出主導型으로 過去數年間 持續的인 高度成長을 해 온 우리經濟로서는 甚大한 憂慮가 아니될 수 없다.

더우기 今年度의 輸出 目標가 昨年보다 30.04% 引上되었는데도 不拘 하고 1-2月 두 달동안은 도리어 1.3%나 昨年 보다 減少되었다는 事實은 輸出增進의 意慾阻害 作用이 아니될 수도 없다.

한편 注目하게 되는 또 하나의 事實이 信用狀 來到額에도 있다.

위에서 알 수 있었듯이 1-2月の 輸出實績이 不振하다고 하더라도 2月末 現在의 信用狀 來到額이 많기만 하다면 1-2月の 輸出不振을 一時的인 現象으로 보아 넘길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

다시 말하면 1-2月 信用狀 來到額이 5億 7千 5百 70萬弗로서 去年同期 보다 10.7%가 적으며 1-2月 輸出實績보다 2千 2百 70萬弗의 減縮인 것이다. 이와 같이 3月以後의 輸出增進이 1-2月の 不振을 克服 할 수 있는 要因이 아직은 發見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蹉跌率이 높아질 可能性을 念慮하게까지 한다.

지난 2月 年例의 財政安定計劃을 協議하기 위해 來韓한 바 있는 IMF 協議團이 75年度 實行輸出計劃을 作成實施할 것을 政府에 중용한 事實도 想起할 수 있다. 우리의 今年度 輸出目標인 60億弗를 達成하기 어렵다는 그들의 判斷이었던 것 같다.

한편 國際經濟의 움직임 특히 우리 經濟와 가장 密接한 關係를 지니고 있는 美·日 不景氣 後退의 豫測에는 各論各說이 區區하지만 아무튼 今年內에 우리를 괴롭히는 不景氣가 後退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는 것이 堅實한 思考方式일 것 같다.

2. 開發途上國의 外債增大

다른 한편 1-2月の KFX로의 輸入實績이 30億 1千 8百 20萬弗로서 去年同期에 比해 11.9%의 激增이므로 輸出不振과는 對照的이다. 하기는 1-2月の L/C 發給額도 4億 4千 1百 30萬弗이었으니 前年同期보다 11.2%만은 줄어들었다. 따라서 3月以後의 輸入增大率이 일단은 낮아질 것을 豫想할 수 있으나 年末까지의 實際輸出入隔差를 展望하기는 過去 어느 때보다도 어려울상 싶다. 왜냐하면 輸出의 蹉跌(計劃과의 對比에서)이 前例없이 큰 것이 今年들어 지금까지의 實績인 때문이다.

이렇게 輸出不振으로 말미암은 貿易收支의 不均衡을 資本收支도 對處하고 있는데 이를 數字的으로 본다면 2月中에서만 하더라도 貿易赤字 2億 1千 5百 10萬弗 때문에 經常赤字 2億 7百 70萬弗, 資本黑字 1億 8千 1百 30萬弗를 나타내었다. 外資導入의 增大를 통한 國際收支의 均衡化를 模索하였던 것이다. 하기는 86個 開發途上國의 外債趨勢도 66년에 381億弗이었던 것이 7年後인 73년에는 벌써 1,170億弗로 激增하였다. 開發國이 經濟開發을 하자면 外債가 늘게 마련이고 다만 그 外債를 어느程度効率的으로 쓰고 있는지가 나라에 따라서 다를 뿐이다. 또 73年 10月の 油類波動이 資源내셔널리즘을 喚起시켰던 때문에 資源을 保有하고 있는 나라들은 비록 開發國이라고 하더라도 外債壓迫의 事情이 달라진 것이다. 예를 들자면 IMF 統計에 依한 74年의 先進國 對外赤字는 1躍 3信인 670億弗에 達하였고 開發國의 貿易赤字가 260億弗 이었지만 產油國은 油類輸出로 1,330億弗을 收入하여 史上初有의 國際收支 大好轉을 記錄하였음을 볼 수 있다.

3. 財政·物價

그리고 國內의 通貨, 國內與信, 財政, 物價 등의 增減 또는 上昇의 動態를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의 經濟展望을 試圖하고 經營姿勢를 定立하는데 있어서 基本的인 順序가 될 것이다.

通貨는 今年들어 2月末까지 43億원이 줄어 들어 마이너스 0.5%에 該當한다. 한편 國內與信이 2,930億원이거나 늘어나서 9.8%의 增加를 招來한 것은 對照的이다.

또 同時に ① 通貨增加를 隨伴시키지 않는 與信增加가 많은 것. ② 輸出增加로 말미암은 通貨還收가 高率인 것. ③ 財政撤超를 하되 金融緊縮은 徹底히 強行한다는 政策 등이 通貨減縮, 國內與信增大의 背景인 것을 알 수 있다.

通貨가 減少되었는데 그 減縮部門이 海外部門과 民間部門(其他部門도 약간)일 뿐 政府部門과 肥料部門은 大幅 늘어났다.

즉 政府部門에서 1,370億원 肥料部門에서 785億원의 巨額이 各各 늘어났고 海外部門 1,830億원, 民間部門 290億원이 각각 줄어든 것이다.

위에서 밝힌바와 같이 輸入이 激增되었고 民間部門의 資金供給이 壓縮된 經過의 說明이 되는 側面이다.

또 1-2月の 財政執行의 實績을 概觀할 때 「歲入內 歲出」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된 一般財政 이고 特別會計는 入超·特別計定과 其他의 赤字가 두드러졌다.

즉 一般財政의 收支差는 마이너스 13.4%로서 歲入 1,798億원, 歲出 1,932億원이고 特別會計는 歲入 938億원, 歲出 697億원이다. 그리고 特別計定은 糧穀基金 776億원, 其他 435億원의 赤字이므로 收支差가 마이너스 1,211

億원이다.

따라서 總財政 赤字가 1千1百4億원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다.

그런데 物價의 側面을 본다면 今年 1월에 全國都賣 物價指數가 5.6% 올랐던 것과는 對照的으로 2月에는 0.5% 밖에 오르지 않았다. 12.7措置 및 其他 여러번에 걸친 物價의 引上調整이 1月の 物價上昇 要因이 되었다고는 하더라도 2月中 0.5% 上昇에 그친 것은 意外의 感이 없는 것도 아니다. 하기는 全都市 消費者物價의 추세가 注目될 바로서 1月에는 2.8% 상승으로서 全國都賣物價의 上昇率인 5.6%의 半에 그치고 있다. 그런데 2月에는 都賣物價 上昇率의 4배이상인 2.1%의 上昇인 것이다. 이는 都賣物價의 上昇과 消費者物價의 上昇時差를 뜻하는 것이며 國民生活과 直結되는 消費者物價의 上昇要因이 이 時點에도 相當率 남아있다는 立證이기도 하다. 1-2月の 全國都賣物價의 前年末對比 上昇率은 6.2%인데 全都市消費者物價의 상승율은 4.9%이기 때문이다.

4 國際經濟 回復의 조짐

以上과 같은 貿易收支, 通貨 및 國內與信 그리고 財政, 物價 등의 動向을 概觀하고 韓國 經濟와 密接한 關係를 지니고 있는 美·日 兩國을 비롯한 國際經濟의 展望을 參酌하는 見地에서 企業經營의 新姿勢定立을 서둘러야 할 줄 안다.

國際經濟의 核心的問題가 인플레이와 不景氣인데 前者가 鈍化段階에 들어선 것은 否認하려는 사람(機關)이 없고 오르지 後者인 不景氣가 後退할時點에 對해서 見解가 不一致되고 있을 뿐이다.

今年 下半年부터 또는 年末前後을 起點으로 景氣회복이 시작될 것이라 보는 側이 많은가

하면 明年以後에도 몇해동안 不景氣가 끈질기게 계속할 것이라고 사뭇 悲觀的인 豫測者가 없지도 않다.

그런데 최근에는 「1.4 分期에 安定勢를 보이기 시작하여 2.4分期 부터는 徐徐히 景氣가 상승할 것이라」고 日本 景氣를 展望한 바 있는 福田日本副首相의 例와 같이 景氣회복이 相當히 빨라질 것을 示唆하는 見解를 듣게도 되었다.

우리나라 景氣趨勢와 關係가 깊은 日本經濟의 일아므로 생각나는 몇가지를 간추려 본다면 ① 지난 2月中 日本에서는 債券投資와 自動車·家電(家庭用 電氣機器)등의 販賣가 늘어났다. 이러한 事實을 日本經濟의 回復조짐으로 看做하는 側이 있고 ② 한편 2月中의 輸入이 42億 9千萬弗로서 1월에 比해 10.3% 前年同期보다는 實로 30.1%의 激減으로 國際收支의 好轉을 보였다. ③ 그리고 인플레이션 상승率은 鈍化하였다. 또 오는 3月末日에 끝나는 74年會計年度の GNP가 前年度에 比해 1.8%만 낮아질 것으로 日本政府의 經濟企劃廳이 推計하고 있으며 ④ OECD(世界 24個 先進國으로 構成된 經濟協力開發機構)는 75年度 日本經濟의 實質成長率을 3.5%, 인플레이션 상승율을 10%로 내다보고 있다. 日本의 失業者가 지난 1月 現在 99萬名으로서 比前月 19.3%, 比前年同期 36.9%의 各增加를 나타내었으나 日本經濟가 최근 보인 조짐 그대로 回復되어 간다면 昨年봄以來 꾸준히 밀고온 緊縮政策의 勝利라고 할 것이며 99萬名의 失業者數가 國家單位의 人口水準으로 보아서는 많은편도 아니다.

한편 美國도 최근 수개월 동안 經濟活動의 沈滯로 인플레이션이 鈍化되고 原資材 값이 1월에 19.4%, 2월에 1.1%가 각각 下落하였다. 小賣額이 增加되는 등도 回復조짐으로 보는 側이 많은데 「제너럴모터」가 休職從業員 6千8百

萬名을 오는 4月까지 全員 復職시킬 것을 發表한사실 또한 注目된다.

그리고 西獨의 經濟回復 조짐으로는 8個月만인 2월에 求人數가 많아진 것, 75年의 GNP가 1.5%는 成長할 것의 公算이 커진 것등을 들수 있는데 慎重히 다루는 見地에서도 景氣의 最低局面에서 上昇基盤을 形成하기 시작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EC 地域에서의 關心事가 英國과 이탈리아이다.

74년에 91億弗의 貿易赤字를 내었던 英國이 今年에도 13—14%의 인플레이션을 覺悟해야 할 展望인데 13—14%의 인플레이션(74年末에는 17%)은 몇個 先進國들의 10%線(예상)보다 過重負擔이다. 그리고 이탈리아는 올해들어 벽두인 1월에 貿易量이 前年同月の 49百億리라보다 激減된 3,520億리라 이었고 豫測단은 겨우 悲觀的임을 免하고 있다.

그밖에도 前記한바의 美·日·西獨 등의 景氣回復 兆朕으로 풀이되는 側面과는 對照적으로 不透明한 景氣前途를 豫想시키는 側面 또한 없지 않다. OECD의 3月上旬의 報告書만 하더라도 75年度 先進國(24個 OECD 會員國)들의 GNP가 平均 마이너스 1.5%를 示顯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이는 前번 報告書로 밝힌 바 있는 0.25%—50%보다 더욱 惡化할 豫想을 하게된 結論이다.

이와같이 국제 景氣回復의 前途에는 明暗의 두갈래가 交叉되어 있어 우리가 決定的인 判斷을 내리기는 어렵게끔 되어 있다. 다만 최근의 國際經濟動向으로 보아서는 생각보다 빨리 景氣回復이 될 可能性을 意識하면서 不景氣가 長期化할 事態에도 對備하는 2重 戰略的인 企業姿勢를 定立하지 않아서는 안될 줄 안다.

이번의 不氣景는 過去에 있었던 不景氣와

그 배경을 달리하고 있어 回復段階를 豫見 하기가 지극히 어렵기 때문이다.

5. 새 환경에 對處하는 賢明

그런데 또하나 留意해야만 할 企業의 課題는 앞으로 景氣가 회복될 때 그 軌道와 樣相이 달라질 事態에의 對備이다.

예를 들자면 貿易自由化 體制下에서 低廉한 各種의 商品이 해마다 高率增大하는 국제交易를 계속하던 그러한 狀態로 還元되지는 않을 것이다.

高價의 原資材로 生産되는 製品을 販賣해야 하는 業者인데 需要者의 所得增大는 物價上昇에 미치지 못하고 消費節約도 어느 程度 生活化되어 市場은 「바이어스 市場」化 할 것이다. 따라서 「마진」幅이 좁아질 景氣回復後의 새 상황에 企業은 지금부터 서둘러 對備해야 할 일이다.

問題는 「마진」뿐만이 아니다. 消費者嗜好도 많이 달라진다. 不景氣와 消費者 嗜好變遷이 直結되는 것도 勿論이다. 昨年에 氷菓景氣가 일어나서 清涼飲料業界를 當황케하였거니와 日本에서는 그보다 4年前인 世界貿易博覽會때 氷菓需要가 爆發하였었다. 消費者嗜好는 이렇게 변하는 것이지만 이번 景氣뒤의 嗜好變動이 幅넓고 多難해질 것은 人間心理面으로 보아서 豫測할 수 있다.

또 嗜好變遷以外的 理由들에 依해서도 消費패턴이 달라지고 따라서 商品需要의 構造的인 修正도 不可避하게 될 것이다.

이와같은 景氣回復後에의 對策을 세우기 위해서 財閥企業을 비롯한 많은 企業들이 상당이 움직이고 있는것을 알 수 있다. 특히 重役乃至 幹部人事의 登用再編 등은 눈에 띄이게

活潑해졌다.

앞으로 ①國內資源開發(食糧·에너지 및 其他) ②輸出第一主義에서 內需生産擴大에의 轉進 ③勞動集約産業(造船·鐵鋼·시멘트 및 其他)과 高級品을 生産하는 高度技術産業(輸出産業)과의 調和있고 實利 큰 並進 등등의 課題가 登場되는데 適正한 施設投資가 現段階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원래 好況期에 對備하는 補強·擴大를 위한 施設投資는 不況期에 行해져야 하는것이고 好況의 後期에는 施設擴大가 禁物이다. 그런데 72—73年(가을까지)에 施設投資를 많이하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企業界는 自繩自縛의 苦難을 크게 겪고있는 것이다. 責任을 世界的 不景氣에만 轉嫁시킬수 없는 노릇이다.

끝으로 要約해서 結論하자면 ① 앞으로 인플레이션率이 顯著하게 낮아질 것은 明確히 豫見되고 ② 景氣回復 時期에 대해서는 各說이 區區하나 最近에는 相當한 期間을 두고 생각해 왔던것 보다는 빨리 景氣回復이 될 可能性이 짙어가고 있으며 ③ 景氣가 回復된後에 「마진」이 壓縮될 뿐만 아니라 嗜好의 變遷 및 其他原因에 依해 消費패턴이 달라짐으로써 品目別 需要의 構造變化가 올것이고 ④ 好況에 對備하는 施設投資를 지금의 不景氣속에서도 輕視하는 過誤가 경계되어야 하며 ⑤ 景氣回復後에 過去와 같은 貿易自由化時代의 再現을 期待하기는 어려움으로 輸出에 盡力하되 內需擴大에 대한 새로운 意慾을 喚起해야 하겠고 ⑥ 國內資源의 開發 그리고 低勞賃의 利點이 持續될 상황을 勘案하는 勞動集約産業의 擴大強化를 하며 ⑦ 새業種 新品目の 開發에 力點을 두는 한편 好況業種에의 競爭熾烈化에는 政府施策으로도 未然防止하는 등등 景氣回復에 對備하는 一聯의 構想과 一部實踐은 지금도 반드시 매이른 것이라 말할수는 없다.